

유엔 세계인권대회 참가기

신 해 수

빈 세계인권대회에서 만난 남북의 정신대 할머니 김복동씨(왼쪽)와 장수월씨.



테헤란 대회이후 25년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엔의 기구가 과연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발전과 인권의 관계, 여성문제, 원주민 등 소수민족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등이 중요과제로 다루어졌다.

대회는 6월10-12일까지의 민간단체회의와 대회기간 내내 계속된 민간단체주최 행사 그리고 국가대표들이 참석한 본회의(6월14-25일)로 나눌 수 있다.

인권상황 나쁜 나라들 반발

본회의에는 한승주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신두병 인권대사, 빈 주재 대사관 관리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관리들이 참석했다. 민간단체 부분에는 한국에서 모두 15명이 참가했고, 해외에서 온 교포까지 합하면 30명 이상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

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개최 후에는 민간참석자를 5백50명으로 제한하여 본회의 입장권을 발부하는 바람에 5백50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토론과 다툼이 있었다. 다행히 본회의 둘째날부터는 제한이 취소되어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할 일은 민간단체회의에서 채택한 선언 자체가 본회의 선언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본회의 선언문 초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꼭 고쳐져야 할 부분을 고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민간단체회의의 3일동안 참가자들이 모두 '유엔기구' '발전' '여성' '원주민' '인종차별'의 5개분과로 나뉘어져서 토의하고 각 분과별 선언문을 작성했다.

여성들은 여성팀을 만들어 대회선언문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로비팀이 그 수정안을 가지고 로비하는 전략을 폈다. 여

했다. 부상당한 일본군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군 위안부들의 피까지 뽑았다는 것을 듣고 청중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25개국을 참여시켜 여성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 열기와 진지성에서도 모든 타 프로그램을 압도하여, 같은 시간에 진행된 다른 행사는 참가자가 없어서 진행이 안될 정도였다는 말까지 들었다.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로 초안이 결정되었는데, "현재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였다.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과거에' 발생한 정신대문제는 제외시킬 수 있는 구실을 일본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빼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팀'은 수정안에 이것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를 만들어 아시아 여성회의 결의문 내용과 함께 국가대표들을 상대로 한 로비작업에 나섰다. 모두 30개국 이상의 대표들을 접촉했는데, 서구 선진국 대표들은 대부분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아시아는 정신대피해자가 있는 나라들조차 일본과의 관계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귀국하기 전날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안에서까지 로비를 계속해 국가대표의 하늘색 신분증만 보면 그냥 보내기가 아까울 정도였다.

원래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선언문 기초위원회에 제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북한이 먼저 제기하여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제3세계국가가 "현재의"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을 지지했고 일본만이 그대로 둘 것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았던 브라질의장이 "현재의"를 "모든(all)"으로 대체시킬 것을 제안하여,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나게 된 것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다. 일본 언론은 처음부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일본외교의 망신'이라고 까지 보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모든 활동이 8월에 다시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정신대관련 논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된다.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정신대문제 싸고 일본과 '팽팽'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 용납못해

석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는 5명이 참가했고, 뉴욕과 L.A.에서도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하여 3명의 교포가 참가했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민간단체 부문 참가자들이 처음부터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본회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자국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나라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민간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워 두 부문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은 12일의 민간단체회의 폐막식에서부터였다. 폐막식에 초청될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압력에 의해 참석을 못하게 되자,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연설 10분동안 내내 그의 연설을 보이콧하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본회의는 선언문 기초위원회에 민간의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일부 회

성들은 2년전부터 미국의 여성운동가 샤롯(Charlotte Bunch)을 중심으로 유엔의 인권논의에 여성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이론적 실천적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잘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여성분과는 '여성인권 침해에 관한 국제재판'을 15일 하루종일 열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5개부분으로 나누어, '가정내에서의 폭력' '전쟁중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피임, 낙태문제)' '사회, 경제적 인권침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 및 차별'로 나누어, 한 부분당 5-6명씩 모두 25개국의 피해여성들이 참가하여 증언을 했다. 각 부분별 증언이 있은 후 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있었고,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종합판결이 있었다.

정대협에서는 '전쟁중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례로 정진성 교수(정대협 조사연구위원장)가 정신대의 실상을 간단히 설명하고, 정신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생생한 증언을

정대협에서는 위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외에 필리핀, 북한의 정신대관련 조직과 연대하여 아시아 여성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북한, 필리핀에서 정신대할머니 한분씩의 증언, 정신대실상, 각국의 활동,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패널토의, 그리고 국제적 활동 등을 다루었다. 이 모임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첫째, 유엔이 정신대문제를 조사할 것, 둘째, 세계인권대회 선언문에서 정신대 문제를 제외한 문안을 삭제할 것, 셋째, 일본은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배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의 '힘' 마침내 꺾어

이번 대회 선언문은 그 초안이 4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준비위원회에서 작성됐다. 그 중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부분중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그 마지막 두 문장이 전쟁중에 발생하는 여성인권유린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이러한 종류의(전쟁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특히 살해,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등은, 특별히